

# Docteur-Noir의 處方에 關하여

## —〈Stello〉를 中心으로—

孫 炳 犝

Sur la Consultation du Docteur-Noir  
dans 〈Stello〉

SOHN Byong-Moo



Vigny appela les deux livres par lesquels il entendit se répondre à lui-même, sur deux questions que la Révolution de 1830 lui permettait de se poser: "Dois-je avoir une action politique, dois-je avoir une action religieuse?" Pour un poète, la première question pouvait se poser sous cette autre forme: la poésie doit-elle s'asservir à un idéal politique? La réponse sera donnée par la Première Consultation, par 〈Stello〉. Restait la seconde question, de beaucoup la plus importante.

Selon le sujet de notre mémoire, nous avons essayé dans cette étude d'examiner et d'éclairer ce que le Docteur-Noir a résolu la crise politique dans 〈Stello〉 par sa Première Consultation, après avoir étudié l'expérience de Révolution de juillet 1830 de l'écrivain, car 〈Stello〉 est le produit immédiat de cette Révolution.

### I. 序 言

1832년에 發表된 〈Stello〉는 大革命과 七月革命을 겪으며 한갓 Paria로 轉落한 詩人의 運命을 다룬 Alfred de Vigny의 象徵的인 中篇이다. 作家가 1831년 3월 2일에 그의 친구 Brizeux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에 별써 〈Stello〉의 主要思想이 壓縮되어 있다.

“Les parias de la société sont les poètes, les hommes d'âme et de coeur, les hommes supérieurs et honorables. Tous les pouvoirs les détestent, parce qu'ils voient en eux leurs juges, ceux qui les condamnent avant la postérité. — Ils aiment la médiocrité qui se vend bon marché, ils la craignent parce qu'elle peut jeter sa boue; mais ils ne craignent pas ceux qui planent comme ceux qui pataugent. — Ha! quelle horreur que tout cela!”<sup>1)</sup>

Vigny의 경우에 七月革命은 暴力, 流血, 内亂, 非情과 같은 現實과의 만남이었고, 自由化가 可能해 보이던 바로 그 時期에 精神의 解放이라는 그의 꿈이 깨지고마는 苦杯를 안겨다 주고 말았다. 그의 이러한 쓰라린 体验은 바로 作品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서히 <Stello>,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 <Daphné>를 出産시켰다.

<Stello>의 作家는 七月革命을 겪으며 政治的인 行動을 取할 것인가, 아니면 宗教的인 行動을 取할 것인가 라는 두가지 問題를 스스로에게 提起하고, 이에 대한 解答을 求해야 했다. 그중에서 첫번째 질문은 詩人의 경우에 詩가 政治的인 目的을 위해 屈服되어야 하느냐는 다른 形態로 提起될 수 있었다. 그 질문에 대한 解答이 La Première Consultation으로서, <Stello>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두번째 질문은 形而上學的인 것으로 La Deuxième Consultation에 의해 주어지는데,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作品<Stello>의 孕胎時期가 七月革命이라는 觀點에서, Vigny가 겪은 생생한 革命의 体验을 파헤치고, <Stello>에 나타난 作家의 知性내지 理性을 代表하는 Docteur-Noir의 處方에 依해 詩人이 政治的 危機를 克服하는 過程을 瓠明코자 한다.

## II. 七月革命의 体验

### A. 封建的 모랄

七月革命이 勃發하자 “나의 義務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인가?”라고 Vigny는 自問한다. 그로서는 近衛隊에 復歸하려 가는 것이 軍人으로서의 義務이며 또한 封建的인 義務임을 잘 알고 있었다. 積은 制服을 준비하며, “萬一에 王이 近衛隊 將校全員을 부른다면 나는 갈 것이다. — 왜 나는 죽음을甘受해야 되느냐”<sup>2)</sup>고 묻고 있다. 1聯隊 Le Motheux 大尉는 勅令이 내려진 날 辭表를 提出하였다가 그날 저녁에 騷擾가 일어나자 辭表를 되찾았다.<sup>3)</sup> 그러나 Vigny는 어떻게 處身해야 할지 勞心焦思 하다가 몇 날을 그냥 보내고 만다. 그러다가 그는 Bourbon王家가 巴리에 나타나지 않음을 非難하기에 이른다.<sup>4)</sup> 革命은 점점 成功을 거두어 갔으나 그는 끝내 싸우려 나가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의 封建的 義務를 저버린 셈이 되었다. 結果的으로 義務를 저버렸기 때문에 Vigny로서는自身을 背反케 한 理由를 分明하게 밝혀야 되었다. 그래서 그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執着을 “迷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詛咒하고 나섰다.

“Superstition, superstition sans racine puérile, vieux préjugé de fidélité noble, d'attachement de famille, sorte de vasselage, de parenté du serf au Seigneur.”<sup>5)</sup>

나아가 그는 귀찮은 政治的迷信과 영원히 訣別하였으며, 政治的迷信만이 本能的인 움직임에 의

1) Lettre à Brizeux, cité par P. G. Castex, A. de Vigny, Hatier 1957, p. 70

2) Journal, p. 911

3) " , p. 916

4) " , p. 912

5) " , p. 911

해 자기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투덜대고 있다.<sup>6)</sup> 또한 “對抗할 줄도 모르는 王世子와 Charles X世의 無力함이 그들에 대한 執着이라는 迷信으로부터 나를 解放시켰다.”<sup>7)</sup>고 하더니, 끝내는 “政治에 더 이상 關心이 없으며, 나에게서 政治를 빼앗아갔다고 해서 화도 내지 않으며 政治야말로 나의 머리속을 괴롭혔다.”<sup>8)</sup>라고 當時의 日記에 쓰고 있다. Vigny의 경우에 있어서 過去에는 Satan에 대한 反抗이 重大한 事實이라면, 現在나 未來에 있어서는 恨恨으로 가득차고 分析되어 自身을 正當화시킨 王에 대한 個人的인 不服만이 重大한 事實이라고 보여진다.

두 中篇<Stello>와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는 그의 不服에 基礎를 둔 作品이다. <Servitude>가 無條件 絶對的 參與인 狂信主義에 대한 批判이라는 點에서,<sup>9)</sup> 또 <Stelio>는 散發의이며 直接的인 献身이라는 點에서 두 作品의 基礎가 되고 있다.

封建的 모랄에 대한 Vigny의 不服은 “思想에 献身하는 것이 人間에게 献身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sup>10)</sup>라는 그의 새로운 모랄의 出現에 拍車를 加한 셈이 되었다. 나아가 1830년 7월 부터는 “獻身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思想에 대한 献身과 人間에 대한 献身으로, 後者는 不安하고 變하기 쉬우며 流動的이나, 前者は 沈着하고 偉大하며 平隱하고 崇高한 것이다.”<sup>11)</sup>라고 그는 力說하고 있다. 作家의 여러 가지 理由에서 생겨난 思想에의 執着은 때마침 그가 救濟하지 못한 者들에 대한 執着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七月王政下에 Vigny가 政治를 回避하게 된 決定의 理由와 接할 수 있다. 例를 들면 舊王族에게나 Bourbon家에 이어 Orléan家에 매달리는 것은 Bourbon家에 대한 자신의 背信이라고 그의 立場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Vigny의 생각에 最上級의 모랄인 思想의 모랄이라는 이름으로 背反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政府에 대한 無關心이 佛蘭西에 支配의이다.”<sup>12)</sup>라는 必然的인 歸結을 使用하고 있음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革命은 또한 가까운 將來에 精神이 支配하리라는 Saint-simon의인 그의 꿈을 깨뜨리고 人間은 情熱的임을 일깨워 주었으며 懐疑主義를 가르쳐 주었다. 또한 内亂의 두려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늙고 얼빠진 白痴이며 내버려 두면 内亂을 始作할” Marmier를 不信하게 되고, 閣僚들에 대한 訴訟이 提起되고 있는 동안 “内亂이 어디서 始作될 것인가?”<sup>13)</sup>라고 自問하였다. 그해 12월 20일 市長집에서의 모임에서는 閣僚들에 대한 訴訟을 구실삼아 政權을 전복하려는 隊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sup>14)</sup> 그래서 23일에는 자기 婦人을 떠나 보내고 거리에서 徒歩를 하며, 萬一 아침에 國民兵이 오지 않았더라면 内亂이 始作되었으리라”<sup>15)</sup>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國民兵 内部에 分裂이 생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은 끝나고 内亂이 始作되었을 것이라고 判斷하고, 革命에 있어서 秩序를 維持함은 内亂과 恐怖를 預防하며 實質로 人道의인 役割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王黨派와 猛烈한 共和派에 똑같이 敵對되는 그가 속해 있는 多數黨인 “中道 懐疑派”的 任務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런데 “오늘 多數黨인 中道派가 殺人이 두려워 殺人者들을 막 체포하였다.”<sup>16)</sup>고 告發하고 있다. 12월 25일에도 革命은 계속 되었고 革命勢力의 國民兵를 解散하게 되면, “内亂이 始作되리

6) " , p. 912

7) " , p. 915~916

8) " , p. 918

9) 摘稿: La manière de vivre dans <Servitude>, 海大論文集(人文·社會篇, 1979) 14輯, p. 271~272 參照

10) Servitude, p. 658

11) " , p. 649

12) " , p. 649

13) Journal , p. 926~927, (1830, 7. 19)

14) " , p. 927

15) " , p. 928

16) " , p. 928

17) " , p. 929

라<sup>17)</sup>고 우려하며, 28일에는 國民兵을 “武裝된 懐疑主義”<sup>18)</sup>로 定義하는데, 이를 하나의 非難으로 看做하기보다는 反對로 Vigny가 자기자신과 同僚들에게 돌리는 휴머니즘의 證書로 보아야 될 것이다. 1831년 1월에는 그의 立場이 다음과 같이 밝혀지고 있다.

“La majorité sceptique est en garde contre les partis et leurs faux enthouiasmes; mais elle ne les attaque pas, elle ne se lève et ne s'indigne que lorsqu'elle est attaquée gravement. Elle frappe, ensuite se repose, jusqu'à ce qu'on recommence à l'attaquer.”<sup>19)</sup>

조금 후에는 國民兵이 그가 바라던 不偏不黨의 部隊가 아님을 후회하며, 자기는 눈이 먼 政府의 편도 아니고 “革命의 形態가 納得이 간다면 革命을 支持하겠다.”<sup>20)</sup>라며, 暴力革命에 反旗를 들고 나선다. 그러므로 Vigny가 쓰려고 構想한 <Stello>의 一部는 多數의 中道懷疑派의 歷史가 아니라 内亂이 우려되는 重大한 時期에 처해 懐疑的인 휴머니즘을 立證하려는 作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懐疑를 보내던 하느님께 처음으로 加護를 비는 時期가 革命이 한창 進行中인 때 이거나, 아니면 閣僚들의 訴訟이 始作되기 直前이라고 하는 것이 偶然이 아니라는 事實은 “疑惑과 憐憫”이 그의 内部에 浸透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Un doute m'a saisi -Le Christ ne fut-il pas sceptique? —Oui, il le fut et d'un doute plein d'amour et de pitié pour l'humanité, cette pitié que j'ai personnalisée dans Eloa. —Pardonnez-leur, car ils ne savent ce qu'ils font! C'est le doute même.”<sup>21)</sup>

萬一에 作家가 <Stello>에서 社會秩序를 하나의 거짓으로 보이게 하려는 分明한 意圖가 있는 것이라면, 絶對主義를 모욕하려는 끊임없는 必要가 있는 것이라면, 神의 이름 및 神聖을 가장한 原則으로 行해진 모든 政治와 裁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면, 權力者들을 폭로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면, 이 모두는 아마도 그해 12월에 懐疑的인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疑惑과 사랑을結合시킬 수 있는 關係를 發見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宗教裁判所의 勢力이나 執政官의 勢力, 絶對的인 宗教나 絶對的인 市民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戰爭, 制度에서 나오는 殘忍性, 이 모두가 謙虛하게 自重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内亂의 威脅에 面하여 <Stello>는 全篇에 걸쳐 이러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sup>22)</sup> 苦痛과 流血의 威脅을 받으며 高揚되는 革命의 热氣 앞에서 각者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또 모든 絶對라는 것이 거짓된 絶對임과, 神聖하다고 하는 主張이 거짓된 神聖임을 疑心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社會는 하나의 規約이며, 絶對 神聖 不易을 主張하며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結果的으로 거짓임을 每日 아침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Stello>의 作家는 생각했다.<sup>23)</sup> <Stello>는 理論的인 作品도 無政府的인 作品도 아니어서, 政治 社會의in 思想을 부당하게 찾게 될 지 모르나, 絶對만이 殘忍하기 때문에 이를 緩化시켜야 한다는 거의 意圖의in 作品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疑惑과 憐憫”<sup>24)</sup>이라는 세로운 混合의 1831년 1월 16일字<sup>25)</sup> <Paris>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

18) " , p. 930

19) " , p. 932

20) " , p. 936

21) Journal, p. 924

22) cf. infra.

23) Stello, p. 745: “Comment va votre mensonge ce matin?”

24) Paris, p. 115

25) Paris, p. 115 : “Des hommes pleins d'amour, de doute et de pitié.”

詩의 흐름은 대단히 緩慢해서 많은 注意를 要한다. 世界는 새로운 宗教, 새로운 社會形態를 기다리고 있다. La Menais, Benjamin Constant, Saint-simon 등 세 사람의 大家가 그 作業에 參與하였다. La Menais는 神政과 國民의 連結을 試圖하였고, Constant은 너무 批判的이어서 아무런 成功을 거둘 수 없었으며, Saint-simon은 基督教의 讽刺를 試圖하였다.<sup>26)</sup> 그러나 그들의 作業은 다음과 같이 아주 否定的이었다.

“Ainsi tout est osé! ... Tu vois? pas de statue d'homme, de Roi, de Dieu, qui ne soit abattue, Mutilée à la pierre et rangée au couteau...”<sup>27)</sup>

그리고 特히 宗教의 形態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장차 나타나거나 아니면 전혀豫想밖의 일이었다.

“Ton ouvrage est sans forme et se périt encore... Oeuvre, ouvriers, tout brûle! au feu tout se féconde!”<sup>28)</sup>

앞으로 나타날 形態에 대해 두 가지 假定을 해볼 수 있다. 그 形態가 하나는 “象徵的”이라는데, 또 하나는 “純粹”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思想을 沮害하지도 않고, 同時に 知性과 感性에도 純粹한 調和를 이룬, 그러면서도 思想을 담은 가벼운 形態의 詩를 쓰려는 全王政復古下의 Vigny의 꿈을 찾을 수 있다.

“Quelque forme animé,  
Symbolique, imprévue et pure, on ne sait pas quoi.”<sup>29)</sup>

이러한 形態의 詩에 關해 作家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를 否定하지 않으리라.

“Oui sera pour chacun le signe d'une fois,”<sup>30)</sup>

그러나 그는 人間家族의 結合과 사랑도 保障 못하여, 1793년<sup>31)</sup>의 宗教나 이스람教처럼 煙氣에 친 磨礪化된 世界만을 남기는 征服의이고 荒廢化시키는 어떤 宗教形態가 나타나거나 않을까 두려워 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純粹한 새로운 宗教에의 꿈 이외에 다음과 같이 猛烈한 새로운 宗教에의 두려움도 나타내고 있다.

“Mais que peut-être aussi, brûlant, pareil au glaive  
Dont le feu dessécha les pleurs dans les yeux d'Eve,  
Il ira labourant le globe comme un champ,  
Et semant la douleur du levant au couchant:  
Rasant l'oeuvre de l'homme et des temps comme l'herbe  
Dont un vaste incendie emporte chaque gerbe,  
Et laissant le désert, qui suit large cours  
Comme un géant vainqueur, s'étendre pour toujours.”<sup>32)</sup>

26) Paris는 12월 9일 이전에 Saint-simon派에 어느정도 同調하는 Sainte-Beuve와의 對話끝에 쓰여졌다 (P.Flettes: *La pensée politique et sociale d'A. de Vigny*, p.85): Sainte-Beuve는 成功을 기대하면서도 “個人과 自發性”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형태에 대해 의심을 표했다. 特히 自由主義派를 批判하기 위해 Vigny는 Saint-simon派와 同調했다: *Journal*, p. 919

27) Paris, p.112

28) " , p.113

29) " , p.113

30) " , p.113

31) 佛蘭西 頑強가 革命에 대해 反問을 하며, 1793년의 宣戰攻勢를 주지하고, 그들의 “진로”를 막는 “道德의 頑強”를 否定하던 때이다. (Paris, p.113).

32) Paris, p.113

그래서 萬一에 發生할지도 모르는 危險에 直面해서 基督教를 타운 것이 옳았는가, 아니면 새로운 形態를 追求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었는가 하는 두 가지 反問이 생겼다. 基督教에 손을 베타는 問題에 대한 後悔가 다음豫言에 드러나고 있다.

*“Lorsqu'une meule énorme apparaîtra sur la cité... dont les enfants auront effacé Jésus-Christ du coeur comme du front... alors que la ville énivrée d'elle-même, au plaisir du sang sera livrée... alors l'Ange la rayera du monde, et le rocher du ciel l'écrasera.”<sup>33)</sup>*

그러나 Vigny는 아직도 Saint-simon의in 그의 希望을 믿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後悔는 꺼이고 만다.

*“Si la fore devine  
Est en ceux dont l'esprit sent, prévoit et devine  
Elle est ici.”<sup>34)</sup>*

人間이 確實히 믿고 있는 것은 苦痛과 죽음, 이 두 가지이다. 社會에 대한 神의 意志란 알 수 없는 것이며, 아주 危險스럽고 失望에 친 形態만이 수 천 년을 두고 계속되어온 것이라고 Vigny는 보고 있다.

*“Dans lénigme sans fin dont Dieu sait la réponse,  
Et comme lhumanité demandant son décret,  
Tous les mille ans rejette et cherche le secret.”<sup>35)</sup>*

그런데 社會의in 수수께끼는 形而上學의인 것으로, 이는 解決될 수 없는 問題여서 <Cinq Mars>에서 이미 들은 노래를 <Stello>에서 다시 들려주고 있다. 이는 行動을 포기하고 諦念속에서 사는 一般 小市民의 노래이기도 하다.

*“Et songe qu'au-dessus de ceux dont j'ai parlé.  
Il en fut de meilleurs et de plus encore...  
Des hommes pleins d'amour, de doute et de pitié  
Qui disait : je ne sais, des choses de la vie,  
Et qui par dévouement, sans détourner les yeux,  
Burent jusqu'à la lie un calice odieux...”<sup>36)</sup>*

그러므로 <Paris>에서 宗教形態에 關한 最初의 疑心, 基督教를 社會形態로 방치해 버린 後悔와個人의in 懷疑主義와 純粹性의 制限을 보아야 한다. 그 理由를 너무도 잘 說明해주고 있는 것은 그 詩가 Saint-simon派와 카톨릭教徒 모두를 失望시켰다는 事實이다.<sup>37)</sup> 그럼에도 不拘하고 Vigny가 <Avenir>紙와 接近한 것이 바로 그 때였다.

### B <Avenir>紙와의 關係

여기서 <Avenir>紙와 만나게된 緣由를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Vigny와 Montalembert가 個人的으로 서로 만나도록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젊은 Montalembert와 Cornudet는 자신들을 <Cinq

33) " , p. 113

34) " , p. 114

35) " , p. 111

36) " , p. 115

37) P. Flottes, ibid, p. 86 參照

Mars>와 <Do Thou>에 比較하면서 友情을 維持하고 牺牲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sup>38)</sup> Cornudet는 그의 친구 Montalembert가 스웨덴 여행중에도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가 Montalembert에게 <Eloa>의 긴 要約을 보내주었을 때, Montalembert는 <Moïse>, <Dolorida>, <Le Trappiste>를 더 좋아하며, <Eloa>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sup>39)</sup> <La Frégate La Sérieuse>가 <Globe>紙에 發表되었을 때는 이 未完成의 作品을 바다와 船員들의 묘사처럼 그에게 알려주기도 했다.<sup>40)</sup> Montalembert가 파리에 되돌아왔을 때 Craon王子가 그를 Vigny의 “水曜會”에 案内하였다. 그는 “카톨릭에 依한 유우법 再生에 關한” Sainte-Beuve와 Vigny의 意見에 “魅惑되었다”<sup>41)</sup>고 宣言하였다.

六月에 Montalembert의 여러차례 訪問이 있었고, 1831년 2월 2일에 그가 訪問하였을 때 Vigny는 <Avenir>紙에 協力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보여 주었다.<sup>42)</sup> <Avenir>紙의 基督教觀은 教理보다 慈善에 力點을 두고 있고, 하느님과 自由와의 대담한 聯合 속에서 原始教會를 다시 始作하고 있기 때문에 偏狹된 教理와 更塞한 宗教形態에 反旗를 들고 있던 Vigny의 마음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事實上 2월 15일에는<sup>43)</sup> “아일랜드의 基督教”에 關한 一聯의 記事에서 Vigny가 Montalembert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44)</sup>

“Dans cette terre sainte de nous autres catholiques des siècles froids et civilisés, s'expriment avec force la jeunesse morale et le fervent enthousiasme du peuple. Le paysan a renoncé aux églises anglaises de l'envahisseur, leur préférant des huttes couvrts de chaume et des salles obscures derrières les maisons des villes où des prêtres, pauvres comme lui, célébrant les mystères de la vieille religion du pays, sacerdoce sublime parce qu'il a juré devant Dieu d'être pauvre et libre.”<sup>45)</sup>

나아가 信仰은 萬人에게 있어서 지극히 데리케이트하여 名譽와 관련되어 있다고 쓰고 있다.<sup>46)</sup> 그런데 여기서 Vigny가 카톨릭을 讚揚하고, La Menais와 만날 것을 提案하는 Montalembert에게 보내는 편지<sup>47)</sup>가 Saint-Germain l'Auxerrois事件 바로 다음 날인 1831년 2월 15일字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831년 2월 14, 15 兩日은 Vigny의 記憶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날이라고 여겨진다. 오랜 變化 끝에 自由主義者 Vigny가 保守主義者로 바뀌었으나, 그 兩日의 事件이 變化的 出發點이 되고 있다. 1831년 2월 14일에 Saint-Germain l'Auxerrois教會에서는 Berry 공작의 追悼미사가 거행되었다.<sup>48)</sup> 參席者는 正統王黨派, Saint-Cyrien派와 婦人們이었다. 미사가 끝날 무렵, 靈柩臺에 Bordeaux 공작의 石版畫가 매달려 列 사이로 돌고 있었다. 國民兵이 群衆을 解散시켰다. 四時경에는 下層民들이 教會로 몰려가서 약탈을 하고, 教會안에 있는 세종이 백합꽃이 새겨진 十字架를 파괴하려고 들었다. 市長이 이를 말렸으나, 十字架가 넘어지면서 파이프오르간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 2월 15일에는 너무도 나약한 國民兵의 한 分遣隊가 보는 앞에서 파리 大主教 邸宅을 약탈하였다. 그때

38) Comte de Montalembert: Lettres à un ami: Cornudet.

39) Cornudet à Ch. de Montalembert, 1829. 4. 9. p. 253  
Ch. de Montalembert à Cornudet, 1829. 6. 5 p. 253.

40) Cornudet à Ch. de Montalembert, 1829. 5. 17, p. 276

41) Journal, 1830. 4. 7.

42) ibid

43) Lettres, p. 239

44) Anenir, 1月 1, 5, 8日字

45) " , 1月1日字

46) " , 1月18日字

47) Lettres, p. 239-240: “Je placerai volontiers vos lettres à la suite des lettres édifiantes.”

48) Lesur: Annuaire Historique, 1831. p. 83

의 狀況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La grille du côté de l'eau avait été renversée; les papiers utiles, les livres rares et précieux, les tableaux, parmi lesquels on comptait des chefs-d'œuvre, les divers objets de mobilier, de garde-robe, furent arrachés, dispersés, jetés dans la Seine, qui, toute la journée la roula dans les flots ... Le travail semblait distribué par atelier et s'exécutait avec méthode, avec promptitude; jamais ouvriers payés à la tâche ne firent tant de besogne en si peu de temps.<sup>49)</sup>”

以上이 全部가 아니고, 15일은 大謝肉祭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고 한다.<sup>50)</sup> 한편 파리 일부에서는 武裝한 國民兵이 秩序와 平和를 維持하려고 最善을 다하고 있는데도, 또一部에서는 대낮에 虐殺이 憲行되고 있었다. 저녁의 Carroussel 광장에는 野營하는 모닥불이 무도회장으로 향하는 차량의 불빛과 서로 얹히고, 거리와 부두에는 전날밤에 파괴된 가로등 대신에 장식등이 나타났다. 바로 그 날이 아니면 그 다음날 Vigny가 外出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51)</sup> 그는 基督教에 대한 冒瀆과 粗雑하고 異教徒의 享樂이 함께 뒤섞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宗教와 道德의 自主性에 不安이 시작됨을 알아 차릴 수 있었다.

<Avenir>紙에 보낸 편지 <Lettres parisiennes><sup>52)</sup>에서 苛酷하고 反教權主義의 作品을 싫어 함을 Vigny는 털어놓고 있다. 1830년 11월 8일 Odéon劇場에서 三幕劇<l'Abesse des Ursulines>를 관람한 후 몹시 언짢아 하였으며, 1831년 3월 24일 Port-Saint-Martin劇場에서 공연된 <l'Incendiaire>에 대해 非難을 퍼부었다.

1830년 3월에는 Basse-Normandie의 몇개 面에서, 4월 15일에는 Calvados와 Manches의 여러 道에서 騷擾가 發生하였다. 선동자의 10분의8이 시골처녀들이었는데, 이는 진정한 犯罪라기 보다는 일종의 모노마니가 作用한 것으로 보았다.<sup>53)</sup> Antier와 Comberousse는 1831년 2월 運動의 結果인 不寬容을 利用하려 들었고, 선동자들이 主教와 神父들에 의해 비밀리에 鼓舞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Vigny는 이러한 虛偽와 濟神에 분개하였다. 아울러 “新教徒들과 유태教徒들”까지도 분노케 하는 그들의 “不敬虔한 行爲”에 대해 항의를 했다.<sup>54)</sup> 비록 <Avenir>紙가 Vigny로 하여금 두번째의 편지를 게재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ontalembert와의 友好關係는 계속되었다. 그해 11월 15일에 <Auénir>紙가 停刊되었다.

“La France n'est plus chrétienne. La majorité est sceptique et indifférente, à peine déiste. L'épreuve la meilleure a été faite. Sous les auspices d'un grand talent un journal a été entrepris, réunissant les deux idées de religion et de démocratie. Il n'a pu être populaire.”<sup>55)</sup>

前年에는 内亂 때문에 몹시 不安해하였던 Vigny가 마침내 “1832년 리옹에 물어 보시오”<sup>56)</sup>라고 외치고 만다. 리옹 견직공장 종업원들의 폭동, 리옹의 탈환, 군사적인 공포가 다음해인 1832년에 일어났다. 바로 “大恐怖時代”<sup>57)</sup>가 到來한다.

그러면 Vigny의 경우에 革命의 体验은 무엇인가? 그것은 暴力, 流血, 内亂, 殘忍性과 같은 非

49) " : ibid, p. 84-85

50) " : ibid, p. 84-85

51) Avenir, 2月18日字

52) Lettres, p. 246

53) 1830년 7월 15일 Caen 重罪裁判所 開廷期 參照

54) Lettres, p. 257

55) Journal, p. 961 (1832년 8월 6일字)

56) Stello, p. 747

57) La peste: Lucas-Dubreton의 作品名

情한 現實과의 만남이었다. 또한 그것은 自由化가 可能해 보이던 바로 그 時期에 精神의 解放이라 는 그의 꿈이 깨지고 마는 쓴 맛이었다. 이러한 体验은 全部가 作品에 바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Stello>, <Servitude>, <Daphné>를 出產시켰다. 이제 作品<Stello>에 나타난 政治的 危機 를 克服하는 過程을 살펴는 作業이 남아 있다.

### III. 政治的 危機

“저들이 하고있는 바를 모르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시오.<sup>58)</sup>라는 그리스도의 懐疑的인 이 말의 뜻을 全部 紋明하지도 못하면서 Vigny는 이를 使用하고 있다. 盲目的인 人間을 다른 小說<Servitude>의 題詞로 使用하려고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도 바로 그 말이었다.<sup>59)</sup> 萬一에 그리스도를 十字架에 못박아 죽인 者들이 그들의 神을 못박아 죽였다는 事實을 정말로 몰랐다면, 그들의 責任과 犠牲의 重要性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sup>60)</sup>라고 作家는 묻고 있다. 그리스도의 그 말 자체는 無意識의 肖影에 잠긴 모든 人間의 行動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그속에 疑心과 燐憊이 뒤섞여 있다. Stello 를 權力에 대한 趣味에서 치료하고, 權力者の 宮能의이고 殘忍하며 流血을 좋아함을 막기 위해, 權力者の 行動을 無限히 檢討하려 들었다.<sup>61)</sup> 그러나 懐疑主義는 결국 Stello를 위한 하나의 治療法이며, 殘忍性에 대한 하나의 方法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여기서 Vigny가 分析의 必要性을 알고 있었음을 살펴보기로 하자.

人間은 無意識의으로 假善이며, 他人에게나 自己自身에게도 不透明하다는 것이다. 人間은 그들의 참다운 모습을 감추는 “各樣各色의 無數한 虛偽의 假面”<sup>62)</sup>을 쓰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종전 보다 더욱 “마음의 分析”<sup>63)</sup>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그 分析에 依하면 肉體의 힘과 罪의 힘이라고 보았다.<sup>64)</sup> 그리고 모든 行動, 特히 모든 政治的인 行動은 그 根底가 情熱의이라고 看做하고, 行動이란 Stello가 원했듯이 行해야 할 慈善이나, 성취해야 할 정확한 目的이 아니고 野望, 利害,<sup>65)</sup> 宮能과 같은 發散시켜야 할 個人的인 情熱이라고 쓰고 있다.

權力에 대해 <Stello>의 作家는 宮能의in 觀念을 갖고 있으니 마치 꼭 쥐어짜는 포도송이 마냥 “權力의 송이”<sup>66)</sup>라는 表現을 하고 있다. 健全하건 惡辣하건 權力은 언제나 宮能의이며, 바꾸어 말하면 利己主義가 가장 洗鍊된 것으로 보았다. 内亂中에 자신의 經驗을 토대로 글을 쓰면서, Vig-

58) Journal, p.924: “C'est le doute même.”

59) ” , p.924, -Saint Luc, XXIII, 34.

60) Vigny는 Michelet의 <Histoire de France>: t. II 1833, p.284에 나타난 Abailard의 思想을 생각하고 있다. “Le crime n'est pas dans l'acte mais dans l'intention, dans la conscience. Aussi plus de péché d'habitude ni d'ignorance. Ceux-là même n'ont pas péché qui ont crucifié Jésus sans savoir qu'il fut le sauveur. Il faut donc croire que Dieu ne les a punis que temporairement et pour l'exemple.”

61) Chapitre XIX. 一聯의 原稿題目：“Dur comme la pensée —Le coeur les plaint—L'esprit les méprise—Tristesse et pitié.”

62) Stello, p.643

63) Stello, p.643

64) cf. Chant de Satan

65) Journal, p.956: “Pourquoi donc suis-je né aimant le vrai et haissant le faux jusqu'à la fureur? Toute hypocrisie me révolte! J'ai tort cent fois... Comment ne pas voir qu'il y a un éternel sous-entendu, un mot d'énigme que tout le monde sait, un vrai secret de comédie qui fait la basse continue de tous les hymnes politiques, c'est l'intérêt politique.”

66) Stello, p.642

ny가 La Rochefoucauld와 같은 内亂時의 作家나 Champfort같은 革命의 先驅者들의 悲觀的인 分析을 생각해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보인다.<sup>67)</sup> 모든 分析이 肉體의 힘과 行動의 情熱的인 根底를 나타낸다면,<sup>68)</sup> 두 가지 還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即例外的인 者를 人間으로, 權力者를 情熱的인 人間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例外者를 人間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첫째의 還元때문에 “선생, 英雄도 怪物도 없다는 것이 나의 獨特한 主張입니다. 오직 어린이를 만이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sup>69)</sup>”라는 句節이 <Stello>의 빈축을 사게 하였고, Molé백작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Stello>의 作家를 菲難한 것으로 보인다.<sup>70)</sup> 普遍的인 人間性을 갖지 않은 人間은 없으며 說明 될 수 없거나, 同情받을 수 없는 人間도 없다는 것이 Comité du salut public 종사자 들에 대한 Vigny의 意見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英雄측에 끼거나 怪物측에 끼려는 二重의 傾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傾向에 대해 그들도 他人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情熱, 利害關係, 狀況등에 의해 이끌려 가고 있다.<sup>71)</sup>는 아주 간단한 說明을 加하고 만다. Vigny는 人間에의 還元<sup>70)</sup>을 가지고 테러분자들의 心狀을 說明하기 위해 適用을 시도한다. 그 心狀은 “분노, 공포, 우울”의 세가지 成分이 들어있는 “殺人者の 持續的인 氣分” 바로 그것인데, 이는 “未遂로 끝난 自殺”과 같아서 他人들이 죽으면 또 다시 시작한다고 보았다.<sup>73)</sup> 나아가 日常生活에서 비천하고 사소한 行動들이 공포분자들에게는 추겨져 매우 훌륭한 行動처럼 보인다고 그 理由를 들고 있다.

權力人을 情熱的인 人間으로 還元시기는 問題는 Saint-Just와 Robespierre의 두 特殊한 경우를 들어 說明하고 있다. 權力人도 一般人과 마찬가지로 情熱的인 人間인데, 다만 그가 자신을 만족시켜야 하는 安易함에 누구보다도 더 잘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權力이야말로 “가장 不道德한 것”<sup>76)</sup>이라고 보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Vigny에 依하면 Saint-Just는 “殘忍한 至福者”<sup>76)</sup>였다. 博識하고 峻嚴하며, “純潔無垢하고 溫和하며, 장미꽃 잎새 위의 한방울을 이슬처럼 純粹한 생각을 가졌던” 幼年時節을 보면 Saint-Just가 이러한 “차갑고 궁리된 어리석음”을 갖게 된 것을 한마디로 說明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너무 早熟한 한 夢想家の 位置를 갑자기 약간 옮겨놓은 것”<sup>77)</sup>에 지나지 않은 些少한 일이라고 보았다. Saint-Just의 殘忍性은 自己陶醉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기요틴을 주면 “저것을 끌어당겨서 이것을 밀면 되는 거지, 너무도 간단하군!<sup>78)</sup>”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다. 權力에 抵抗하기에는 너무도 약한 마음의 所有者에게 權力에 대한 主된 熱望은 命令을 내리고, 名單에다 이름을 쓰는 등의 아주 간단한 일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Vigny는 느끼고 있었다. 殘忍해지기 쉬운 點과 습관적이라는 點에 관해 作家

67) Manuscrit

68) Vigny는 거의 그 무렵에 Marie Dorval과의 연애사건이 있었다. 作品에 타나난 것보다도 그의 감정을 숨겨야 함이 더욱 고통스러웠으며, 이는 &lt;La Maison du Berger&gt; 첫번째 節에 귀착되고 있다.

69) Stello, p. 641

70) cf. Journal, 1852. 3. 1: Réflexion sur Stello(p. 1290)

71) Manuscrit

72) Thèse des “médiocres”, Stello, p. 644

73) Stello, p. 644

74) Stello와 Journal p. 947을 비교할 것:

“Docteur —“Poussez votre idée en avant-encore-bien Docteur Remarquez que les scélérats existent plus d'intérêt que les hommes purs —pour peu qu'ils aient une petite qualité on leur en sait gré.”

75) Fragment 138 de Chantilly: “Le pouvoir après tout est une chose tellement puérile en elle-même qu'il la la faut laisser à ceux qu'elle peut amuser. Les marottes sont aux enfants...C'est lui qui rend les hommes méchants.”

76) Stello, p. 698

77) " , p. 698

78) " , p. 699

는 <Cinq Mars>부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A force de mettre la mort sur le papier, on accoutume les peuples à cette pensée : un homme qui gouverne et l'écrit souvent, finit par trouver que la mort d'un autre ne fait pas de mal."<sup>79)</sup>

그리고 <Stello>의 경우는 權力에 젖어 있는 不幸을 非難하고 있다.

"Peindre (Saint-Just) montrant familièrement ses ouvrages au Docteur, ayant le malheur de s'être accoutumé au Pouvoir... il l'exerce avec une émulation singulière d'impassibilité.<sup>80)</sup>"

왜냐하면 權力이란 편리한데다가 습관적으로 유혹이 增加되기 때문에, “神聖하고 聖스러운 것”<sup>81)</sup>이 “무엇보다도 致命的인 것”<sup>82)</sup>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Vigny는 보다 많은 注意力を 갖고 Robespierre의 모습을 꼬질기게 쓰고 있다.

Robespierre의 野心과 絶對權力에의 갈망을 Vigny는 결코 疑心치 않았다. Richelieu가 奸計를 꾸며야 했던 것처럼, Robespierre는 國民會議와 수작을 부려야 했다. 그는 Docteur-Noir에게 자기의 힘을 誇示하려 들며, 相對의 反應을 注視하였다.<sup>83)</sup> Vigny가 Robespierre의 歷史的 役割은 舉論하지 않고 共和國이 그에 의해 타격을 받았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음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sup>84)</sup> 作家는 Robespierre의 모랄面에만 오로지 關心을 보이고 있다. Vigny의 作品에 나타난 Robespierre는 他人을 자기의 從屬下에 두는 데서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그는 宮能的으로 죽음과 한바탕 勝負를 걸고 있다고 보았다.<sup>85)</sup> 한 原稿에 依하면 Robespierre의 이러한 意圖를 찾아 볼 수가 있다.

"Il lisait les journaux anglais quand le Docteur-Noir antra, et y lisait, les troupes de Robespierre, il faut le peindre bâillieux, livide, les yeux mornes et éteints, clignement fréquent, port de lunettes vertes, recevant une femme pour le plaisir supplier d'elle."<sup>86)</sup>

行動人은 自己自身과 함께 훌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Vigny가 생각했던 것처럼, 自己의 獨創力으로 人物을 構想할 수 없는 Robespierre는 죽음이라는 종말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피와 살덩어리로 된 人物들로 悲劇을 構成하는 殘忍性和 不納함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sup>87)</sup> “議會의 변호사이며 가벼운 作品이 著者”<sup>88)</sup>인 Robespierre에 나타난 쓸모없는 人物에서 “充足되지 못한 欲望이 行動을 낳으므로, 欲望을 充足시키느니 보다는 쓰는(ecrire)편이 더 낫다”<sup>89)</sup>는 文章에 作家의 理論이 表現되고 있다. “歷史的으로 偉大한 人物들”<sup>90)</sup>을 겸허하게 만드는 方法이 있는데, 이는 行動을 해야 된다고 主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現實에 이끌려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Do-

79) Fragment 66 de Chantilly: "Son coeur ne fournit point les pensée et son imagination."

80) Fragment 138

81) Stello, p. 644

82) " , p. 699

83) Fragment 13 de Chantilly

84) Stello, p. 693

85) " , p. 745

86) " , p. 707

87) Stello, p. 764

88) cf. La chute d'un ange

89) Stello, p. 709

90) Journal, p. 1259

91) Stello, p. 734

權力者는 “낡은 虛構”를 항상 持續시켜야 하는데 反해, 詩人은 “언제나 새로운 眞理의 使徒”<sup>110)</sup>라고 쓰고 있다. 보다一般的으로 볼 때, 소리에 억양이 붙지 않은 思想<sup>111)</sup>, 文學的인 表現속에 나타난 想象과 行動에 具體化된 훨씬 粗雜한 想象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새로운 作品과 옛 作品間의 은밀한 關係를 스스로 究明하려는 努力에서 Vigny는 <Cinq-Mars><sup>112)</sup>와 <Stello><sup>113)</sup>의 두 文章을 對照시키고 있다.

*“Quand on veut rester seul, il ne faut pas se mêler sur les hommes.” — “l’application des idées aux choses n’est qu’une perte du temps pour les créateurs de pensée.”*

創作과 그 適用은 相反되는 것으로, 前者가 더 稀貴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詩人の 作業과 權力人의 作業은 조심스럽게 區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oyez sûrs que s’il se rencontre (dans vos écrits) une idée ou simplement une parole utile au progrès civilisateur, il se trouvera assez d’hommes pour la ramasser, l’exploiter, la mettre en oeuvre jusqu’à satiété.”<sup>114)</sup>*

그리므로 人間에는 두 種類가 있고, 行動에도 두 種類가 있다는 理論에 立脚해서 救濟를 追求해야 된다는 것이다. 社會속에서 Vigny는 市民임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참다운 自由로운 市民이란 政府에 執着하지 않으며, 어느 무엇에도 執着하지 않는 者”<sup>115)</sup>라고 그의 <Journal>에 쓰고 있다. 마침내 Vigny는 純粹한 想象의 追求를 優位의 行動으로, 그 想象의 單純한 適用을 下位의 行動으로 認定하기에 이른다.

Docteur-Noir가 지적하였듯이 行動도 아니고<sup>116)</sup> 詩도 아닌,<sup>117)</sup> 단순히 움직이려는 感傷的인 생 각에 지나지 않은, Stello가 그의 信條라고 부르는 善心이라는 感情에 대해 Docteur-Noir는 두 가지 形態의 行動, 두 가지 形態의 慈悲, 두 가지 形態의 純粹性을 對照시키고 있다. 即思想을 創造하거나 아니면 이를 전파 내지 타락 시키는 行爲, 자기자신을 알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他人의 놀이에 뎁달아 춤추려는”<sup>118)</sup> 行爲, 流血을 모험하거나 아니면 無事하게 살아가는 일 등을 對照시키고 있다. 또한 Docteur-Noir는 行動이란 Stello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필코 善心이 아님을 그의 가슴속에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의 天職을 따르시요”<sup>119)</sup>라고 일러 준다. 그리므로 Vigny가 그 자신은 詩人이 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보다 純粹한 行動을 위해 태어났으며, 그의 義務는 오직 詩人이 되는 길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면<sup>120)</sup> 그는 孤立되지 않고 自身을 救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여기서 Docteur-Noir의 最終處方이 나오게 된다.

그 處方은 詩의 創造를 持續하도록 提案하는 것으로 苦行과 거의 宗教的인 内面生活이 問題된다.

110) " , p. 753

cf. Journal, p. 1002

111) Journal, p. 941

112) Stello, Chap. XXV

113) " , Chap. XXXX

114) " , p. 750

115) Journal, p. 698

116) Stello, p. 587: “Tout cela ne prouve qu’un bon instinct.”

117) " , p. 587: “Il n’est pas impossible que vous soyez poète.”

118) " , p. 620

119) " , p. 753

120) " , p. 752: “Parce que l’homme découragé tombent souvent, par paresse de pensée dans le désir d’agir et de se mêler aux intérêts communs.”

Vigny가 批評의 没理解를 뛰어넘어 自身의 立場을 分明히 하려고 하였던 点은 孤獨은 創造를 위한 孤獨이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強調하고 있다.

"Quand j'ai dit la solitude est sainte, je n'ai pas entendu, par solitude, une séparation et un oubli entier des hommes et de la société, mais une retraite où l'âme se recueillir en elle-même, puisse jouir de ses propres facultés et rassambler ses forces. Cette production ne peut être jamais qu'un reflet des impressions reçues par sa société, mais il sera d'autant plus brillant que le miroir sera plus clarifié par la retraite et plus épuré par la flamme d'un amour exatique de la pensée et l'ardeur d'un travail opiniatre."<sup>121)</sup>

#### IV. 結 言

以上에서 Vigny가 1830年七月革命을 겪으며 精神의 自由化라는 그의 꿈이 깨지고, 内亂·流血과 같은 非情한 現實에直面하여 한갓 paria로 轉落한 詩人の立場을擁護하고當時 權力者の行動을無限히 謙虛하게 하려는二重의 意圖에서 <Stello>를 出產시켰음을概觀하였다.

黑限의 謐麗가 아닐 수는 또 없었다. Stello가 詩人이라는 그의 天職을 잊고 政治에 參與하려는 欲望을 없애기 위해, Docteur-Noir는 行動을 두 가지로 分析해 냈다. 본래 行動이란 그 根源이 情熱的인 것으로 不道德하며 流血事態를招來할 危險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優位이며 보다 純粹한 行動이 있으니, 이는 어느 行動人이 자기의 思想을 實現시킨 것인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詩人이 되어 오로지 思想을 追求하는데 있다고 보았음을 이미 指摘하였다. 이렇게 分析을 끝내고 나서 政治的인 目的을 위해 屈服하려는 一種의 政治的 危機인 行動하려는 欲望이 作家의 内部에서 醇化되었다고 보여진다.<sup>122)</sup> 결국 Vigny 자신의 冷徹한 知性에 의해 한때 政治的 行動에 헛되들 떤했던 그의 感性에 制動을 걸어, “久遠의 學生”으로서 人間苦의 莪嚴함을 노래하며 詩作에 精進하여, 훗날 “純粹精神”을 낳을 수 있도록 그를 지켜준 藥을 作家自身의 知性을 代表하는 Docteur-Noir라는 半醫師의 處方에 依據한 것으로 본다.

## Bibliographie

1. Oeuvres complètes d'A. de Vigny, t. I, texte, notes et bibliographie établis par F. Baldensperger, Bibliothèque de Pléiade, Gallimard, 1950.
  2. Oeuvres complètes, t. II, même édition, 1948.
  3. Mémoires inédits de Vigny, par J. Sangnier, Edition Gallimard, 1958.
  4. Viallaneix(p.): Vigny par lui-même, seuil, 1964
  5. Castex(p.-G.): Alfred de Vigny, Hatier, 1957. A. de Vigny, Stello, Servitude, C.D.U, 1963.
  6. Estève(E.): Les destinées, Edition critique, Droz, 1942
  7. Flotes (P.): Pensée politique et sociale d'A. de Vigny, Belles Lettres, 1927
  8. Bonnefoy(G.): La pensée religieuse et morale d'A. de Vigny, Hachette, 1944
  9. Citoleux(M.): A. de Vigny: Persistences classiques et affinités étrangères, Champion, 1924
  10. De la Salle (B.): Alfred de Vigny, Fayard, 1963
  11. Saulnier(V.-L.): Les Destinées, Edition critique, Milard, 1963

121) Journal, p. 693

121) J. H. Nichols, p. 116.  
122) Sainte-Beuve가 1833년 1월 11일 자로 La Menais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Stello>의 魔方에 관한 王  
要思想을 찾을 수 있다. (G. Goyau: *Le Portefeuille de La Menais*, 1930, p. 116~117): "Il faut,  
pour une contemplation poétique et religieuse soutenue, établir une marge de séparation entre  
le monde et soi..."



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Stello>의 作家는 “모든 時代의 虐殺者들”을 한결같이 非難하고 있다.

“Qu'ils viennent de l'Orient et de l'Occident! venez en soutane, venez en cuirasse, Venez, tueurs d'un homme et tueurs de cent mille; depuis la Saint-Barthélemy jusqu'aux Septembrisades de Jacques Clément et de Ravaillac à Louvel, de Des Adrêts et Montluc à Marat et Schneider.”<sup>103)</sup>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可恐스러운 事實도 빼놓지 않고 있다.

“Le sang a ses buveurs comme le vin. Rien ne les désaltère, ils n'en ont jamais assez, et leur ivresse fait des lois au lieu de couplets.”<sup>104)</sup>”

人間의 이기에 나쁜 社會秩序가 神聖을 가장한 거짓으로 인해 더워 邪惡해지지 않고, 또 거짓된 絶對가 無法下에서 殘忍하지 말기를 Vigny는 빌고 있었다.

“L'orgueil humain sera éternellement tourmenté de trouver au pouvoir temporel absolu une base incontestable et il est dit que les sophistes tourbillonneront autour de ce problème et viendront s'y brûler les ailes. Qu'ils soient tous absous, excepté ceux qui osent toucher à la vie? le feu sacré, le feu trois fois saint, que le créateur lui seul a le droit de reprendre! Droit terrible que je conteste même à la justice.”<sup>105)</sup>

社會的인 거짓의 理論은 人間自身의 虛構에 對抗하는 人間擁護처럼 보인다. 또한 그 虛構가 神聖하고 流血의임을 보증하려고, 虛構가 虛構임을 믿지 않을 때 거짓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의 이면 流血도 正當化 시킬 수 있는 真正한 改革도 없으며, 真正한 革命도 없다고까지 主張하고 있다.

“L'ordre social est toujours mauvais. De temps entemps, il est seulement supportable. Du mauvais au supportable, la dispute ne vaut pas une goute de sang! C'est une théorie d'assassin.— C'est celle des Septembriseurs et des Inquisiteurs et de Ravaillac et de Louvel...”<sup>106)</sup>

社會的인 거짓의 理論에 의해 流血과 모든 暴力의 可恐함을, 革命과 그 作業에 대한 不信을 Vigny는 確認하고 있다. 人間의 幸不幸이 본질적으로 形而上學의이며 오직 社會的인 改革에 의해서만 莊副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絶對主義의 基本이 되는 偽善에 대한 反感은 더해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人間行動에 疑心과 燐憫을 보내는 濫和하고 懐疑的인 그리스도와, “人間肉体의 救援을 위해 壓血이 充分하지 않았을까?”<sup>107)</sup>하는 Joseph de Maistre의 “찌푸리고 딱딱한 그리스도”라는 本作品의 兩極을 보다 잘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Stello>는 Vigny가 “權力を 手中に 갖고 있는 者들”로 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權力의 濫用者”에게서 벌은 “輕蔑”<sup>108)</sup>을 表現하려는 作品이라면, 또한 그의 思想을 深化시킨 作品이다. “思想의 純粹한 表現”<sup>109)</sup>이란 모든 革命分子를 뿐 아니라, 모든 權力者들도 不可能한 일이라고 보았다.

103) Stello, p. 703

104) " , p. 705

105) " , p. 701

106) Journal, p. 941

107) Stello, p. 701

108) Fragment 137 de Chantilly

109) Stello, Chap. III

權力者는 “낡은 虛構”를 항상 持續시켜야 하는데 反해, 詩人은 “언제나 새로운 眞理의 使徒”<sup>110)</sup>라고 쓰고 있다. 보다一般的으로 볼 때, 소리에 역양이 붙지 않은 思想<sup>111)</sup>, 文學的인 表現속에 나타난 想想과 行動에 具體化된 훨씬 粗雜한 思想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새로운 作品과 옛 作品間의 은밀한 關係를 스스로 究明하려는 努力에서 Vigny는 <Cinq-Mars><sup>112)</sup>와 <Stello><sup>113)</sup>의 두 文章을 對照시키고 있다.

*“Quand on veut rester seul, il ne faut pas se mêler sur les hommes.” — “l'application des idées aux choses n'est qu'une perte du temps pour les créateurs de pensée.”*

創作과 그 適用은 相反되는 것으로, 前者가 더 稀貴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詩人의 作業과 權力人の 作業은 조심스럽게 區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oyez sûrs que s'il se rencontre (dans vos écrits) une idée ou simplement une parole utile au progrès civilisateur, il se trouvera assez d'hommes pour la ramasser, l'exploiter, la mettre en oeuvre jusqu'à satiété.”<sup>114)</sup>*

그러므로 人間에는 두 種類가 있고, 行動에도 두 種類가 있다는 理論에 立脚해서 救濟를 追求해야 된다는 것이다. 社會속에서 Vigny는 市民임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참다운 自由로운 市民이란 政府에 執着하지 않으며, 어느 무엇에도 執着하지 않는 者”<sup>115)</sup>라고 그의 <Journal>에 쓰고 있다. 마침내 Vigny는 純粹한 思想의 追求를 優位의 行動으로, 그 思想의 單純한 適用을 下位의 行動으로 認定하기에 이른다.

Docteur-Noir가 지적하였듯이 行動도 아니고<sup>116)</sup> 詩도 아닌,<sup>117)</sup> 단순히 움직이려는 感傷的인 生각에 지나지 않은, Stello가 그의 信條라고 부르는 善心이라는 感情에 대해 Docteur-Noir는 두가지 形態의 行動, 두 가지 形態의 慈悲, 두 가지 形態의 純粹性을 對照시키고 있다. 即思想을 創造하거나 아니면 이를 전파 내지 타락 시키는 행위, 자기자신을 알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他人의 놀이에 덩달아 춤추려는”<sup>118)</sup> 行爲, 流血을 모험하거나 아니면 無事하게 살아가는 일 등을 對照시키고 있다. 또한 Docteur-Noir는 行動이란 Stello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필코 善心이 아님을 그의 가슴속에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의 天職을 따르시요”<sup>119)</sup>라고 일러 준다. 그러므로 Vigny가 그 자신은 詩人이 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보다 純粹한 行動을 위해 태어났으며, 그의 義務는 오직 詩人이 되는 길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면<sup>120)</sup> 그는 孤立되지 않고 自身을 救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여기서 Docteur-Noir의 最終處方이 나오게 된다. 그 處方은 詩의 創造를 持續하도록 提案하는 것으로 苦行과 거의 宗教的인 内面生活이 問題된다.

110) " , p. 753

cf. Journal, p. 1002

111) Journal, p. 941

112) Stello, Chap. XXV

113) " , Chap. XXXX

114) " , p. 750

115) Journal, p. 698

116) Stello, p. 587: “Tout cela ne prouve qu'un bon instinct.”

117) " , p. 587: “Il n'est pas impossible que vous soyez poète.”

118) " , p. 620

119) " , p. 753

120) " , p. 752: “Parce que l'homme découragé tombent souvent, par paresse de pensée dans le désir d'agir et de se mêler aux intérêts communs.”